

‘대중의 함’ 공론화... 정책 반영 ‘숙제’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과제

“오늘의 대중공사는 실속 없는 겉치장이 아니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중공사 위원들 모두 주인공이자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종단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이에 따른 선입견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요, 이 시대 우리가 풀어야 할 화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마다 가슴 속에 내재돼 있는 지나친 고정관념을 과감히 견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월 28일 공주 대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일설(一說)이다.

종단 현실과 미래를 참가 위원에게 듣는 것으로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11월 25일까지 8개의 의제를 다뤘다. 위원들이 선택한 의제는 종단 현안부터 미래를 위한 사안까지 다양했고 중간에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 파문을 다루는 파격도 보였다.

대중 공론의 장을 만든다

무엇보다 100인 대중공사 최대 성과는 수면 아래로 침잠돼 있던 대중들의 목소리를 종단 제도권 안으로 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가겠다는 대중공사의 토론 방식에서 기인한다.

실제 △대중공사를 하는 동안 나이·지역·성숙을 넘어 평등하게 말하고 들을 것 △도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의견은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 △나 혼자 이야기 시간을 독점하지 않을 것 △진행자의 안내를 잘 따를 것 등은 매회 대중공사에게 꼭 지켜야 하는 틀이었다.

대중의 말과 뜻이 반영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5차 대중공사였다.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5차 대중공사에서는 본래 있던 의제를 뒤로 미루고 ‘종단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에 대해 사부대중이 격론을 펼쳤다.

당시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전체, 모둠 토론 등 8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재심회결의의 의현 스님 재심 결정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냈다. 또한 “재심회결위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재심회결위원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재심회결위원들은 모두 사퇴했다.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뤄진 일련의 결의사항과 후속 조치도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다수 있었다.

3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됐던 ‘사찰 재정 투명화’의 후속 조치로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 사찰(4등급)은 종헌 제124조 및 사찰운영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 및 후속 조치

| 차수 | 일시 | 의제 | 결의사항 및 후속 조치 |
|----|---------|-------------------------|---|
| 1차 | 1월 28일 | 100인 위원에게 듣다 | 1년 동안 대중공사서 다룬 8대 의제 결정 |
| 2차 | 2월 24일 |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종단 내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 업무 추진 중. |
| 3차 | 3월 25일 | 사찰 재정 투명화 |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이상 사찰 예산 공개 결의. |
| 4차 | 4월 29일 |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승가청규, 4대 의제 10대 과제 적극 실천, 종단채신위서 성안한 승가청규 종단 시행 |
| 5차 | 7월 29일 | 종단 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 | 잘못된 판결, 회계원장 사퇴 권고, 종단 과거사 문제 논의, 종단회합과 개혁위한 사부대중위 구성 |
| 6차 | 8월 26일 |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조성, 대중공사 교구 및 지역 확대 |
| 7차 | 9월 23일 |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승가공동체 구현, 법계 사안 신속 대응 |
| 8차 | 10월 28일 | 사찰과 지역공동체 | 불교적 방식의 사회적 역할 고민, 불교가 사회활동가 양성 |
| 9차 | 11월 25일 |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 귀농·귀촌인 등 주목, 사찰, 신앙공동체로 다시 되살아 나야 |

1월 28일 시작... 8대 의제 다뤄 ‘서의현 재심’ 논의, 대중 힘 보여 ‘뒤 아닌 앞에서 말하자’ 성과 커

‘말의 성찬’ 안되려면 실효성 중요 14일 회향식... 내년 ‘시즌2’ 예정

위원회 제6조에 의거해 사찰 재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이며 방법은 사찰운영위원회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미이행 사찰에게는 주지 책임 불가를 비롯해 각종 승인업무 보류·특별 감사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 이후 이뤄진 5차 대중공사를 통해서 ‘종단회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분과·1994년 말빈처리 분과·종단개혁 계승 분과로 나뉘어 현재 전체회의의 3회, 분과회의의 4회, 워크숍 3회를 진행했다.

향후 분과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권역별 공청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일련의 성과에 대해 대중공사 추진위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는 불교계 토론 문화 증진에 큰 전환점”이라며 “대중들이 얼마나 소통을 염원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증진시킨 것만으로도 변화의 기틀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신승국 동그라미대학원센터 대표는 “총무원장은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목록히 들고 있는 모습에서 불교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올해 대중공사에서 의논된 사항이 향후 종단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집행되는가는 향후 대중공사가 불교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이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극복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의 적절한 이행이 당면 과제다. 논의 의제들이 다수 추상적이라보니 결의 역시 비슷하게 이뤄져 정책 반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정책적 피로도가 높아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 인원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2차 대중공사 결의의 후속조치인 미래세대위원회의 경우 처음 주무부서는 포교원이었으나 현재는 기획실로 사업이 이첩됐다. 예산 배정이 이뤄졌으나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명징하지 않다.

4차 대중공사의 후속조치로는 지난 9월 8일 종단채신위 산하 청규제정위가 성안한 ‘대비율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의 종단적 시행을 밝혔지만, 청규를 어떻게 보급하고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는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은 “대중공사는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모아진 공의가 실현되고 실행되기까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대중의 공의를 모아 좋은 결과를 낸 만큼 실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당면 문제의 후속조치는 신속히 실행돼야 하고, 교리·사상적 문제는 결론을 확인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중공사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고 처리해도 중앙총회 등의 반발이 크다. 대중공사 기구를 증빙이나 종령 기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즌2’ 변화하나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12월 14일 회향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즌2’ 선포 등의 계획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대중들 역시 88.8%가 대중공사의 지속 여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들 중 53%는 ‘대중공사는 지속되다’ 구성·의제·진행방법·결의사항 모니터링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내년 ‘시즌2’는 분기별 추진과 장기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의 토론 방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 교구본사·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중공사서 어떤 발언이 오겠다 걸림없는 말들, 변화의 씨앗이 되다

총 9차에 걸쳐 이뤄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참가자들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다. 종단 비판과 상한 등 너무나 다양했던 참가자들의 말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각도를 5도만 틀어보십시오.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각도는 엄청납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각도를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전등불 켜다 끄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현재 스님들은 좌복 위에서 죽을 각도로 수행하거나 길 위에서 죽을 각도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서원이 없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며 죽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사라는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 2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인 대중공사는 결사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1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법회를 보는 모습이 1960년대 모습이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어린이법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어린이 포교는 20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에 나가 다시 사찰에 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2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서 총무원장 지현 스님)

“‘조고각하(照顧脚下)’를 쉽게 ‘발밑을 잘 살펴보라’고 알고 있지만, ‘삼발이하’라는 화두로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 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종단 불신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뼈아픈 자기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오늘, 나로부터 성찰해 변화하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종단과 불교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발전적인 공의를 모아달라.” (4차 대중공사 여는 말 전국선원수좌 회장 철산 스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비롯됐고 이에 대한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판역력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중공의를 모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4차 대중공사 전체 토의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친소 관계에 따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종단 질서가 무너집니다. 재심 결정은 회계원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공의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책임은 현 행정 수반과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5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회서 서울 여의도포교원 주지 현진 스님)

“제가 대중이 불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접근해 교계 언론에서는 비판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들을 보면 사찰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귀족적 신행 생활을 합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재가는 재가답게 정말 열심히 산다면 불교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6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회서 중앙총회위원 만당 스님)

“불교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의처가 돼야 합니다. 현재 불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는 젊은이가 적겠습니까. 사찰에 오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스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6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회서 오원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28일 열린 1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에서 의제 선정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붓다쇼핑

한지임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100매 비닐포장

경면임춘대길
판매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7.5×30cm

임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경면삼대삼재부
판매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크기: 9×2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개당)
•크기: 60×7cm
•포장: 개별 봉투포장

한지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흰색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흰색 - 참 좋은 인연입니다.
C: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D: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금지세뱃봉투(100매)
판매가 A 12,000원 (8×16.5cm)
B 12,000원 (8×16.5cm)
C 12,000원 (8×16.5cm)
D 12,000원 (8×16.5cm)

삼베 삼재풀이
이 부질은 번거로워 좋은 부처이며 참깨가 사람의 살갗을 연화케 하느니라. 지수, 기정인체, 무부화합, 결명취차, 참취취차, 불상소멸 등 민자행동 부처이다.

한지 삼재풀이

신년맞이기도부
판매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판매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